

또한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8%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의

예산의 약 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매년 경상적으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 외에 신규로

〈표 24〉 자치단체 투자사업비 및 투자가용재원 분석 종합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근 거	일반회계 대비 비중(%)
1. 명목상 투자사업비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	55
2. 실질적 투자사업비	명목상 투자사업비중 직접 지역개발 관련 투자사업비	35
3.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	실질적 투자사업비중 자체사업비에 의한 투자사업비	7.9
4.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일반회계 예산중 경상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재정투자수요에 대응한 투자가용재원	3.5

실질적 투자사업비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한 투자사업비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투자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는 명목상 투자사업비 및 실질적 투자사업비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내발적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므로 이의 실질적 자체투자재원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의 확충 논의 시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비율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투자 가능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가장 좁은 의미의 투자사업비라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공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참여정부의 최대의 과제가 지방분권의 추진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개선과제도 제한적이거나 중요한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달성은 재정분권을 여하히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